

남북 분당과 서애 류성룡

우인수*

차례

- I. 머리말
- II. 동인내 류성룡의 위상
- III. 남북 갈등과 류성룡
- IV. 기축옥사와 남북 분당
- V. 남북 대립의 고착과 류성룡
- VI.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 선조대 동인의 남북분당 과정을 동인 내의 갈등, 갈등 심화로 인한 분당, 대립의 고착이라는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검토를 통해 남인과 북인으로의 분당 과정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단계별 과정에서 나타난 류성룡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그의 영향과 위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먼저 동인 내부의 남북 갈등이 있었던 시기는 선조 13년으로부터 선조 22년 기축옥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선조 22년의 기축옥사로 인해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남인과 북인의 대립은 선조 31년 류성룡이 북인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아 실각하고 북인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고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분당의 과정을 거치면서 류성룡은 처음에는 동인의 중심인물

*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나중에는 남인의 영수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중심적 위치에 서기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과 자질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다. 퇴계 이황의 수제자로 자리 매김할 정도로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배와 동문, 그리고 제자 등 폭넓은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문과를 거쳐 관직에 나아가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최고 관직인 영의정에까지 이른 점도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임진왜란기에 영의정을 맡아 위기의 국면을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왜란을 극복한 점도 상징성을 부여받기에 충분한 요소였다.

더구나 임란 말기 복인의 집요한 공격으로 삭탈관직에 처해져서 낙향하는 극적인 모습도 남인의 대표자로서의 모습을 강한 이미지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류성룡의 거물로서의 품모는 억울한 삭탈관직이라는 아쉬움으로 인해 더 강한 인상을 당대인의 기억 속에 남기게 되었다.

주제어

류성룡, 동인, 남인, 남북분당, 기축옥사

I. 머리말

柳成龍[1542(중종 37)~1607(선조 40)]은 남인을 대표하는 존재였다. 그는 관료로서 최고의 지위인 영의정에 올랐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이라는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는 총책임자로서 오랜 기간 활약한 인물이었다. 거기에다가 퇴계 학통의 적전을 잇는 위망을 가졌기 때문에 남인을 대표하는 존재감 면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처음에는 남인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명 중의 한 명이었으나 남인의 대표자들이 이런 저런 사정으로 사망하면서 류성룡만이 우뚝하게 위치 지워졌다.

류성룡의 삶을 살피는데 있어 당인으로서의 류성룡을 기본적으로 살

피지 않을 수 없다. 그를 중심에 두고 동서분당과 남북의 분당 그리고 그 이후의 갈등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들은 당대부터 수많은 기록에서 거론되었으나, 사안 사안에 대한 단편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근대 이후 당쟁에 관한 논문도 많이 발표되었으나 그를 중심에 두고 논지를 전개한 바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동서, 남북 분당의 한 가운데에서 남인의 지도자로 위치해 있었던 류성룡을 중심으로 하여 분당 과정과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분당을 남북 갈등의 조짐, 갈등의 심화로 인한 분당, 대립의 고착이라는 세 단계를 설정하여 각 단계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남북분당기에 발생한 사안에 관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 그 의미를 검토하고 음미하는 방법을 통해 남북분당 과정을 재구성하면서 종합할 것이다. 특히 단계별 남북분당의 과정에서 보인 류성룡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그의 영향과 위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것이다. 다만 류성룡을 중심에 두다보니 자연 그에 대한 편파적이 기술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술하는 것이 본고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II. 동인내 류성룡의 위상

선조 8년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되었다. 처음에는 김효원과 심의겸 사이에 이조전랑 선임 문제가 계기가 되어 양 진영이 나누어지기 시작하였고, 이어 쟁점들이 첨가되면서 점차 뚜렷하게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대개 동인은 신진 기예한 인물들로 비교적 현실의 때가 덜 묻은 상태였으며, 이에 비해 서인은 노성한 이들로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감안해야 할 현실적 요소가 많은 편이었다.

분당 직후에는 동인이 척신이자 서인인 심의겸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공세를 취하고 있었고, 명분상으로도 더 당당한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수적으로도 우세하였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동인 쪽 사람들이 많이 등용되고 또 등용에 관여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갈등이 생겨날 소지는 점차 커지고 있었다. 관직 선임과 관련한 인사 문제, 개인 인물에 대한 평가 등을 둘러싸고 많은 말들이 생성되게 되었다.

사실 이 정도의 갈등은 어느 시대에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특히 이 때 문제가 된 것은 갈등과 대립이 분당을 통해 지속된 데 있을 것이다. 역시 학연이 그들을 구분 짓고 그 구분을 유지시키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였다. 거기에 혈연과 지연적인 요소가 더 보태어져 분당을 지속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관료들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한 당시 군주의 한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그 전시기보다는 신권이 커진 상태에서 그 신권을 억제할 필요를 느끼는 군주는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면 신하들의 분열을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더 거친 방법으로 권한을 휘두를 가능성이 컸었다.

당시 촉망받는 신진관료였던 류성룡이 동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구나 학통상으로도 퇴계 이황의 수제자의 위치로 퇴계학맥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자리는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운명적인 면이 있었다. 이에 비해 이이 같은 이는 한동안 양쪽 진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간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기도 하였다. 수세에 처해있던 서인의 입장에서는 이이의 중재에 대해 우호적인 시선을 보낼 수 있었지만, 우세한 입장에서 공세를 취하던 동인의 입장에서는 이이의 역할을 마냥 우호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없는 면이 있었다. 이이는 조정자로서의 역

할을 포기하고 서인으로 좌정하게 되면서 서인에게는 큰 힘을 보탬 셈이 되었지만 동인의 입장에서는 이이의 순수성을 결과적으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어쨌든 류성룡은 동인 내의 중심인물로 점차 성장하였다. 처음에는 동인을 대표하는 여러 사람 중의 한사람이었지만 점차 일찍 사망하는 자가 나타나면서 그 대표성이 류성룡에게로 집중되어갔다. 평자의 성향에 따라 류성룡에 대한 평가의 편차가 심하였지만 그를 동인의 대표적인 거물로 인정하거나 간주한 점은 공통적이었다. 이를 통해 류성룡의 높은 비중이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이는 류성룡을 유림의 종장이 될 자질을 가진 인물로 간주한 바 있었다. 이이가 동·서인을 조정하고자 자임하였을 때 동·서인의 대표적인 존재들을 조정에 모두 불러 모아서 국사를 논의케 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자신의 방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때 이이에 의해 거론된 인물 중 첫 번째로 꼽힌 이가 류성룡이었고, 이어 김우옹, 이발, 김성일이 거론되었다.¹⁾ 동인측 인사 중에서 공정하면서도 뛰어난 인물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²⁾ 또한 이이는 이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발과 류성룡, 그리고 김우옹이 협력하면 시국의 어려움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었다.³⁾ 이때 김효원을 거론하면서는 ‘도량이 가볍고 그릇이 얇은데 학술이 또한 얇으니 다만 사류 중에 낄 수는 있으나 유림의 종장이 될

1) 이이, 『석담일기』하, 선조 9년 2월(『국역 대동야승』4, 205-207쪽). 이 때 서인의 중심 인물로는 정철이 꼽혔다.

2) 류성룡의 신중하고 공정한 면은 동인인 삼윤 즉 윤두수·윤근수·윤현을 수뢰 죄로 탄핵 제거하려고 하였을 때 이발과 함께 그 논의에 따르지 않고 반대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결국 그들의 수뢰죄는 전모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다(『연려실기술』13, 선조조 고사본말, 선조 9년 ; 『국역 연려실기술』Ⅲ, 318쪽).

3) 이이, 『율곡전서』12, 서, 이발에게 답함.

수는 없다'고 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류성룡·김우옹·이발을 유림의 종장이 될 자질을 가진 동인의 중심인물로 인정한 셈이었던 것이다.⁴⁾

상대당인 서인의 평은 이이에 비해 각박하면서도 과격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慶安令과 정여립의 평이었다. 경안령 李璠는 선조를 알현한 자리에서 류성룡·이발·김효원·김응남 등 4명을 동인의 '괴수'로 지목한 바 있었다.⁵⁾ '괴수'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되었지만, 이는 동인을 대표하는 존재로 간주되고 있었음을 분명히 해준다. 나아가 류성룡은 정여립에 의해 '거간'으로 간주된 바 있었다. 선조 18년 의주목사 서립은 자신의 상소에서 정여립이 이이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한 바 있는데, '三窟이 비록 갔으나 巨奸이 오히려 있다'라고 하는 대목이었다.⁶⁾ 이 때 거간은 류성룡을 가리킨 것이었다. 역시 '거간'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동인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그 위상을 인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이상 이이와 경안령의 평이나 논급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류성룡과 이발이 두 사람에 의해 모두 거론된 인물로서 명실 공히 동인의 대표적 인물로 간주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발은 얼마 뒤에 일어난 기축옥사로 처형됨으로써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그 외 한 차례 논급된 인물로는 김효원·김우옹·김응남·김성일이 있었다. 그 중 김효원은 동서분당의 계기를 제공한 인물로서 주목받는 존재였으나, 그 재목

4) 류성룡도 비록 봉당은 달리하였지만 또한 이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류성룡이 영남에 있으면서 아버이를 위한 축수의 잔치를 준비하여 인근의 친척을 모두 모았다가 이이가 사망하였다는 전갈을 접하고 갑자기 즐거워하지 않으면서 잔치를 파한 사실에서 드러난다(『연려실기술』13, 선조조 고사본말, 선조 17년 1월; 『국역 연려실기술』Ⅲ, 384쪽).

5) 『선조실록』17, 16년 4월 17일 무진.

6) 『선조실록』19, 18년 5월 28일 무술. '三窟'은 이이에 대해 논란하다가 유배에 처해진 송응개·박근원·허봉을 가리킨다.

은 유림의 중장감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었으며, 더구나 지방관으로 좌천되면서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김응남은 기축옥사와 ‘계미삼찬’에 연루되어 제주목사로 좌천되었다가 2년 뒤 다시 기용되었고, 임란 중 류성룡의 추천으로 병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에까지 이르면서 류성룡과 함께 난국 수습에 큰 힘을 보태었으나 임란 막바지에 사망하였다. 김성일은 퇴계학통을 이은 동문수학의 인물로 류성룡과 유사점이 많았으나 임란전 통신사로 다녀온 후 보고와 관련하여 잡음이 있었으며, 임란 초기 왜적 방어에 애쓰던 중 사망하였다. 김우용은 청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동인의 대표자로 많은 역할을 한 인물인데, 그 위상이 류성룡에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그 외 우성전 같은 인물도 동문수학의 유사점이 있고, 남북분당 과정에서 갈등의 계기가 되었던 인물로 흔히 거론되는 비중이 있는 인물이었다. 성격이 너무 곧아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력은 적었던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역시 임란 의병으로 활동하던 중 사망함으로써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이와 같이 류성룡은 동인의 대표적인 존재로 항상 거론되면서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국왕 선조로부터 깊은 신임을 받으면서 높이 평가되던 존재였다. 선조는 류성룡을 ‘거간’으로 지목한 앞의 서익의 상소를 접한 후 류성룡을 ‘大賢’으로 간주하면서 깊은 신임을 나타낸 바 있었다. 선조는 “류성룡도 역시 한 군자로서 나로서는 그를 비록 당금의 큰 대현이라고 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류성룡에 대한 신임과 위상을 표현하였다.⁷⁾ 나아가 선조는 여러 차례 류성룡에 대한 호평을 쏟아낸 바 있었는데, “賢士이며 재주가 있는 뛰어난 朝臣”으로 평가한 적

7) 『선조실록』19, 18년 5월 28일 무술.

도 있었고,⁸⁾ “금옥같이 아름다운 선비”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⁹⁾ 또한 “학문이 순정하고 국사에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기만 해도 공경할 마음이 생긴다.”라고 토로하기도 하였으며, “나라의 柱石”이요 “사림의 영수”로 극찬하기도 하였다.¹⁰⁾

Ⅲ. 남북 갈등과 류성룡

동인 내부에서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갈등의 조짐은 시기적으로는 대개 선조 13년에서 선조 22년 기축옥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에 나타났다. 동인 내부의 갈등은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 바 있었다. 우성전과 이발, 우성전과 정인홍, 이경중과 정여립, 이경중과 정인홍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분당으로까지 치달을 정도로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다. 후일 남북으로 완전히 분당되지 않았으면 일시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고, 따라서 큰 의미 부여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뒤에 분당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분당에 일정한 영향을 끼친 요소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때의 갈등은 여러 사람들이 상호 복잡하게 얽혀있기는 하지만 그

8) 『선조실록』17, 16년 11월 3일 신사.

9) 『선조실록』23, 22년 12월 8일 신사.

10) 『연려실기술』14, 선조조 고사본말, 22년 12월 16일(『국역 연려실기술』Ⅲ, 434쪽). 선조는 이산해와 류성룡을 평가하기를 “경(이산해)은 충성스럽고 근신하고 관후하여 도량이 만석을 싣는 배와도 같아서 옛날 대신의 풍도가 있고, 류성룡은 학문이 순정하고 국사에 마음을 다하여 바라보기만 해도 공경할 마음이 생긴다. …… 두 사람이 나라에 柱石이 되고 사림의 영수임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였다.

갈등하는 양편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은 류성룡과 이발이었다.¹¹⁾ 두 사람은 이이에 의해서도 동인의 대표자로 지목받은 바 있듯이 동인의 최고 명망가였다. 당시 류성룡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인물은 우성전, 김성일, 이경중, 정경세 등이었고, 이발과 연결되어 있었던 인물은 정여립, 정인홍, 최영경 등이 대표적이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성전과 이발·정인홍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우성전은 아버지 언겸의 안동판관 재임을 계기로 인근 고을의 퇴계 이황에게서 학문을 닦았으며, 동갑에 동문인 류성룡과 뜻이 맞아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두 사람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생활을 시작하면서 더욱 깊은 관계로 맺어졌다. 류성룡은 후일 우성전의 일록 뒤에 쓴 글에서 “臺閣에 있을 때엔 언론과 처사가 비록 모의하지 않아도 거의 서로 부합하였고, 世路에 막힘이 많아 부침은 서로 같지 않았지만 평소 좋은 뜻은 하루도 처음과 다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서¹²⁾ 우성전과의 의기투합한 시절을 회상한 바 있다. 그리고 조금 뒤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복인들로부터는 류성룡의 ‘심복’으로 간주되기도 하였을 정도로¹³⁾ 두 사람의 관계는 친밀하였다.

우성전이 그 후 부친상을 당하였을 때, 문상을 간 바 있던 이발은 상가를 출입하는 평양 기생을 마침 목격하고 우성전의 단정치 못한 처신을 맹비난하게 되었다. 『회산잡기』를 인용한 『연려실기술』에 실려 있는 전말은 다음과 같다.

11) 동서분당으로 치닫게 된 갈등의 당사자였던 동인의 김효원은 이후 한직에 머물다가 선조 13년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역사의 무대에서 멀어졌다.

12) 류성룡, 『서애집』18(한국문집총간 52, 1990), 書畀景善日錄後, 357쪽 ; 우성전 저, 황위주·최은주 공역, 『탈초·역주 추연선생일기』(화성시, 2008), 우성전의 일록 뒤에 씌, 221쪽.

13) 『선조수정실록』32, 31년 11월 1일 임오.

우성전의 부친 언겸이 咸從縣令으로 있을 때 우성전이 부친을 뵈려고 왕래하다가 평양 기생에게 정을 두었는데, 얼마 안 되어 우성전의 부친이 병 때문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자 감사가 그 기생을 우성전의 집으로 실어 보냈다. 우성전이 친상을 당함에 미쳐 한때의 名士들이 다 모였는데 평양 기생이 머리를 풀고 출입하는 것을 보고 이발이 말하기를, “제 아버지가 죽게 되어 벼슬을 버리고 돌아오는데 저가 무슨 마음으로 기생을 신고 왔느냐.” 하면서 우성전을 몹시 공격하니, 우성전의 본정을 아는 자들이 결코 그렇지 않음을 밝혔다. 이때에 이발은 北岳山 아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발의 당을 북인이라 이르고, 우성전은 남산 아래 살았기 때문에 우성전을 구원한 자를 남인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동인이 나뉘어 남북이 된 것이다.¹⁴⁾

이 기록은 이견창의 『당의통략』에도 축약하여 간략하게 소개된 바 있는데,¹⁵⁾ 남·북인 명칭의 유래와 관련하여 흔히 인용되는 대목이다. 경위나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우성전이 사랑한 평양 기생이 상가를 출입한 것은 사실인 이상 사류의 처신으로서는 흠결이 아닐 수 없었다. 이를 힐난한 이발에 대해서는 이해심이 다소 부족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우성전을 옹호한 부류들도 그가 잘했다고 옹호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비난을 확대하지는 말자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소한 사건 하나만으로 남·북인으로 갈라졌다고 보기는 개연성이 부족하다. 다만 다음과 같이 유추해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발이 비난의 선두에 선 것은 이미 우성전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것이 이 사건을 기화로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당사자인 우성전도 이발에 대해

14) 『연려실기술』18, 선조조 고사본말, 동서남북론의 분열(『국역 연려실기술』IV, 418-419쪽).

15) 이견창, 『당의통략』(을유문화사, 1972), 16쪽.

섭섭함을 넘어 유감을 가지게 되었을 수 있는데, 이후 우성전이 이발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시비를 건 일은 없는 듯하다.

사실 우성전도 이발만큼 강경하고 정직해서 세태에 영합하지 않는 기풍을 가진 인물이었다. 류성룡은 평생의 지기였던 우성전을 평가하기를 “눈이 높아서 세간의 사람들을 인정해줌이 적었고, 뜻이 맞지 않는 자와는 비록 대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말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문을 닫고 사람을 거절하기도 하였다.”라고 하였다.¹⁶⁾ 이로 인해 그는 당시 사람들로 부터 원망도 많이 사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친구였던 姜緒가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와서 우성전의 눈을 쓸어내리면서 ‘너의 눈이 대단히 높아서 쓸어내려 낮추려는 것이다.’라고 농을 한 사실도 그의 성격을 단적으로 전해주는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¹⁷⁾

그 우성전이 정인홍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언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었고, 정인홍 역시 나중에 우성전을 탄핵함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는 일이 있었다. 선조 13년경 정인홍이 장령으로 부름을 받아 조정에 들어오려 할 때 모두가 기대하는 분위기였는데, 우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名實에 맞지 않으니 끝내 吉士는 아니다.”라는 비난조의 비판을 한 것이다.¹⁸⁾ 우성전이 어떤 이유로 정인홍을 그렇게 평가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전하는 기록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던 자리였기 때문에 이 평은 당연히 당사자인 정인홍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것이다.

선조 14년 2월 사헌부에서 수원현감 우성전을 탄핵하여 파면시켰다.¹⁹⁾ 당시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장령 정인홍이었다. 수원

16) 류성룡, 『서애집』18, 書禹景善日錄後, 357쪽 ; 우성전 저, 황위주·최은주 공역, 위의 책, 우성전의 일록 뒤에 씌, 221쪽.

17) 우성전 저, 황위주·최은주 공역, 위의 책, 『문소만록』 기사, 223쪽.

18) 『연려실기술』18, 선조조의 명신, 우성전(『국역 연려실기술』IV, 598쪽).

19) 『선조실록』15, 14년 2월 9일 계묘.

은 큰 고을이었으나 綱常의 변이 있어 현으로 강등된 곳이었는데, 그 도덕적 심각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시종신인 우성전이 파견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임기가 다 되어 다시 중앙의 청현직으로 복귀할 것을 염려한 정인홍이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국 파직을 시킨 것이었다. 정인홍이 탄핵의 사유로 든 것은 “그가 고을을 맡아 일은 돌보지 아니하고 觀親을 핑계로 항상 서울에 있었으며, 또 많은 돈과 곡식을 서울 집으로 가져다가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방자하게 놀고 마시면서 氣勢를 부리고 망령되게 스스로 자랑하고 높은 체하였다.”는 것이었다.²⁰⁾ 그러나 사헌부 관원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완화되어 단지 임지를 떠나 서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관무를 폐기하였다는 것만을 들어 탄핵하였다.²¹⁾ 우성전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은 이 조처를 부당하게 생각하여 불평이 많았는데, 이로부터 남북분당의 조짐이 시작되었다고 『선조수정실록』은 전하고 있다.²²⁾

장령 정인홍은 우성전을 탄핵한 다음 달인 선조 14년 3월에는 이조좌랑 이경중을 탄핵하였다. 이 때 정인홍은 탄핵에 반대하는 대사헌 정탁과 다투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다. 마침내 사간원의 협조를 얻어 이경중을 파직시키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선조수정실록』에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이조 좌랑 이경중은 본디 지식이 없는데다 또 청도 할 만한 행실도 없으니 본직에 제수된 것은 진실로 人望에 차지 않습니다. 그런데 後進 佳士로서 명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앞을 막아 가리고, 경망하고 방자하며 조행도 없이 진취만을 서두르는 무리들과 交結하여 기세를 부

20) 이이, 『석담일기』하, 선조 14년 2월.

21) 『선조수정실록』15, 14년 2월 1일 을미.

22) 위와 같음.

리므로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색에 방종하며 거리낌없이 날뛰므로 物情이 격분해 하고 淸議가 용납하지 않으니 파직을 명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²³⁾

붕당 간의 조제를 자임하던 이이 같은 이도 이경중에 대해서는 “본래 학식이 없고 또 성질이 탐닉하고 막히어 착한 것 따르기를 잘하지 못하였는데, 전랑으로 매우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자못 스스로 천단하는 습성이 있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²⁴⁾ 그를 논박한 정인홍의 처사에 대해서는 “시골 출신의 외로운 처지로서 충성을 다하여 봉공하니 논박한 바가 비록 지나친 듯 하더라도 실은 이것이 공론이니 어찌 그르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평한 바 있었다.²⁵⁾ 이에 이경중 주변의 인물들은 모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으며, 그 중심에 있던 류성룡도 불편해하기는 하였으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위의 인용문에서 이경중이 앞을 가로 막았다는 명망인 중에는 정여립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뒷날 정여립 모역사건 이후 류성룡에 의해 거론되면서 또 다른 파란을 일으키는 단서가 되었다.

한편 류성룡은 사론이 동·서인으로 갈라졌고 또 남·북인으로 갈라질 조짐을 보일 뿐 아니라 그 와중에 자신도 일부 사람으로부터 ‘괴수’ 또는 ‘거간’으로 지목되는 등의 상황에 처하자 일단 조정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연로한 어머니를 구실로 삼아 선조 16년에 일시 낙향하였다.²⁶⁾ 이 시기 류성룡의 경우는 여러 가지 사류 간의 갈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거론된 구체적인 사실은 없는 편이다. 다만 그는 비중이

23) 『선조수정실록』15, 14년 3월 8일 신미.

24) 이이, 『석담일기』하, 선조 14년 3월.

25) 위와 같음.

26) 『선조수정실록』17, 16년 3월 1일 계미.

큰 유력한 인사 중의 한 명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실제 정인홍이나 최영경에 대해서도 그리 부정적이지 않거나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선조 17년 4월에 우성전에게 말한 다음과 같은 대목에서 잘 드러나 있다.

서애가 말하기를, “남쪽 지방 사우들이 끊어져 방문을 하지 않아서 오직 최효원(효원은 영경의 字) 한 사람만을 만났는데, 긴 대나무 천 그루를 기르고 배옷을 입고 거문고와 서책을 가지고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논의가 격렬하고 기상이 늙름하니 高士라고 할 만합니다. 덕원(정인홍의 字) 같은 사람도 또한 지난날 함부로 행동했던 잘못을 통렬하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운운하였다.²⁷⁾

류성룡은 최영경을 고사로 높이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정인홍에 대해서도 전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면서 비교적 포용하는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인홍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선조 14년에 있었던 일을 가리키는 듯하다. 즉 정인홍이 심의점을 탄핵할 때 앞뒤가 상반되는 논리를 펴므로써 자신이 한 말을 국왕 앞에서 스스로 번복하지 않을 수 없는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정인홍은 강직하긴 하나 용의주도하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을 뿐 아니라 상대당인 서인으로부터는 당론으로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이 같은 이도 평소 정인홍이 기운이 경박하고 도량이 좁아서 처사가 혹 조급하고 떠들썩함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서 경계하기도 하였다.²⁸⁾

이상과 같이 이발·정인홍 측과 우성전·이경중 측이 상호 비난과 탄핵을 주고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동인의 내부에 분열의 조짐이 표면에 나

27) 우성전 저, 황위주·최은주 공역, 앞의 책, 선조 17년 4월 9일, 182쪽.

28) 우인수, 「조선 선조대 남북분당과 내암 정인홍」, 『역사와 경계』81, 2011, 206쪽.

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분열의 단계라기보다는 상대편과 구별될 수 있는 이질적인 요소가 하나 둘 겹으로 드러나 쌓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만 주어진다면 언제든 분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던 셈이었다. 다음 장에서 다룰 기축옥사가 바로 그러한 결정적 계기 구실을 하게 되었다.

IV. 기축옥사와 남북 분당

동인의 내부 분열이 본격화하여 분당으로까지 치닫는 계기가 된 사건은 선조 22년의 기축옥사였다. 이 사건을 거치면서 동인 내 두 집단 간에 갈등이 증폭되어 마침내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되기에 이르렀다. 정여립이 역모를 꾸미다가 탄로가 나서 추포 과정에서 자결한 바 있었는데, 기축옥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만연되었던 옥사였다. 역모의 사실 여부와 관련하여 조작설이 제시되어 있기도 하지만,²⁹⁾ 정여립이 역모를 꾸민던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³⁰⁾

하지만 서인들이 이 역모 사건을 정권을 잡을 절호의 기회로 여겨 옥사를 확대 만연시킴으로써 기축옥사는 동인 특히 나중의 북인에 해당하는 많은 인사들이 억울하게 희생된 정치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호남 지역 내에서는 향촌 사회의 주도권 장악의 수단으로 이 옥사가 이용된 면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여립과 친하거나 일정한 연관을 가진 자들이 주로

29) 김용덕, 「정여립 연구」, 『한국학보』4, 1976 ; 이희권, 「정여립의 학문과 사상」, 『전북사학』21·22, 1999 ; 이희환, 「정여립옥사의 실상과 그 영향」, 『전주학연구』3, 2009.

30) 우인수, 「정여립 모역사건의 진상과 기축옥의 성격」, 『역사교육논집』12, 1988 ; 이상혁, 「조선조 기축옥사와 선조의 대응」, 『역사교육논집』43, 2009.

피해를 당하였다. 옥사를 만연시킨 장본인으로는 서인 정철이 주로 지목되었다. 정철이 정언신을 대신해 우의정에 임명되어 위관을 맡게 되는 선조 22년 11월부터 역옥의 다스림이 더욱 가혹해졌다. 이때부터 연루자가 확대되면서 심문 과정에서 곤장을 맞아 죽어나가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³¹⁾

먼저 이발 집안 전체가 풍비박산이 났다. 정여립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상종한 죄로 동생 이길과 함께 국문을 받던 중 杖死하였다. 이어 이발의 형, 80세가 넘는 노모, 10세 전후의 어린 자식, 사위인 홍세 등 전 가족이 몰살당하다시피 하였다. 병조참의 백유양 일가의 화도 참혹하였다. 백유양의 아들 수민의 처삼촌이 정여립이었고, 수민은 정여립에게서 글을 배운 인연이 있었다. 결국 백유양과 그의 세 아들이 모두 장살되었다. 그리고 우의정 정언신과 이조참판 정언지 형제는 정여립과 9촌친 관계에 있었다. 정여립과 친척이면서 편지 몇 장 왕래한 것이 빌미가 되어 희생되었다. 특히 정언신은 위관으로 있으면서 고변자를 도리어 옥박질렀다는 죄목으로 국문을 받던 중 杖死하였다.

정여립과 관련된 구체적 물증 하나 없이 황당한 죄목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최영경이었다. 최영경은 남명 조식의 문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명망 있는 선비였다. 당초에 정여립과 함께 역모를 주도한다는 인물로 길삼봉이 있었는데, 여러 적당들이 그의 용모에 대해 진술하였으나 진술 내용이 모두 달라 종잡을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길삼봉이란 인물은 정여립이 꾸며낸 인물이었고, 실존 인물이 아니었던 것이다. 정철이 몇몇 사람을 사주하여 최영경을 길삼봉으로 만들어 옥사에 얽어 넣었다.³²⁾ 최

31) 우인수, 「조선 선조대 남북 분당과 내암 정인홍」, 『역사와 경계』81, 2011, 207쪽. 이하 기축옥사와 관련한 내용도 이에 의거하여 약간 가감하였다.

32) 후일 류성룡의 아들 류진이 옥사에 연루되어 갇힌 적이 있었는데, 추국 담당자를

영경이 평소에 정철에 대해 혹독한 평을 한 것을 미워한 때문이었다고 한다. 결국 수차의 국문을 받던 중 옥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최영경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희생되었다. 그의 동생 최여경, 그가 아끼던 동문인 참봉 류종지, 그의 문인인 참봉 윤기신과 찰방 이황중 등이 모두 장살되었다. 최영경과 그 주변 인물들의 희생은 남명학파의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손실이였다. 상당한 중망을 가지고 있던 김우옹은 정여립과 절친하게 지내면서 서신을 왕래한 죄목으로 회령으로 유배되었다.³³⁾ 또한 정인홍도 기축옥사의 여파로 관직을 삭탈당하기에 이르렀다.

정여립 역모사건에 연루된 백유양의 편지에서 이름이 거론된 바 있던 류성룡은 스스로를 해명하는 상소를 올린 바 있었다. 여기에서 류성룡은 일찍이 이조좌랑 이경중이 정여립의 사람됨을 미워하여 청요직에 의망하지 않고 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때 이경중은 도리어 어진 사람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된 바 있었다고 하였다.³⁴⁾ 선조는 이경중의 선견지명을 높이 평가하여 이미 사망하고 없던 그를 후하게 증직하는 한편 그 때 이경중을 탄핵한 자에게는 죄를 줄 것을 명하였다. 그 때 이경중을 탄핵한 자가 바로 정인홍이었는데, 이로써 정인홍은 관직을 삭탈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⁵⁾ 정인홍이 류성룡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 하나가 또 첨가된 것이다.

류성룡이 정인홍을 겨냥하여 선조에게 이경중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

맡은 이이첨이 술회하기를 '정철이 소인배가 된 것은 최영경을 죽였기 때문인데, 만약 류진을 죽인다면 자신이 소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한 바 있었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최영경을 죽인 것이 바로 정철이라는 것이 당시 복인 내부에 사실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류진, 『수암집』(수암문집 간행소, 1980), 「임자록」, 595쪽).

33) 『선조수정실록』23, 22년 12월 1일 갑술.

34) 『선조수정실록』15, 14년 3월 1일 갑자 ; 『선조수정실록』23, 22년 12월 1일 갑술.

35) 『선조수정실록』23, 22년 12월 1일 갑술.

닐 것이다. 오히려 이 역모를 계기로 조정의 신하들을 싸잡아 힐난하려는 선조에 대해 조정의 위신과 체면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진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역심을 가진 정여립을 끊지 못한 것은 조정의 신하 피차가 마찬가지로 취지의 발언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로 인한 불똥이 정인홍에게로 튄 것이었다. 이 사건으로 정인홍이 류성룡을 뼈에 사무치게 원망하고 영구히 원수로 여기게 되었다고 표현한 기록도 있다.³⁶⁾ 그 표현을 액면 그대로 취하기는 어렵지만 정인홍으로서 대단히 불쾌한 사안이었던 것만은 분명할 듯하다.

훗날 사신은 류성룡과 정인홍의 대립을 남북 분당의 큰 요인으로 인식하여 류성룡의 줄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상의 자리에 올라서는 국가의安危가 그에 의지하였는데, 정인홍과 의논이 맞지 않아서, 인홍이 매양 公孫弘이라 배척하였고, 성룡 역시 인홍의 속이 좁고 편벽됨을 미워하니, 사론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서로 공격하는 것이 물과 불 같았다.³⁷⁾

또 학맥을 기반으로 류성룡과 정인홍이 영남지역을 양분하였던 상황을 후일 인조대의 사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였다.

대저 영남은 선비가 많은 곳인데, 이황의 뒤에는 참된 선비로서 우뚝하게 師表가 될 만한 자가 없다. 左道 및 右道の 반은 류성룡을 주장으로 삼아 언론이 투박하고, 우도의 高靈 이하는 인홍을 주장으로 삼아 언론이 포악하였다.³⁸⁾

36) 『연려실기술』17, 선조조 고사본말, 류성룡의 관작을 삭탈하다(『국역 연려실기술』 IV, 380쪽).

37) 『선조실록』211, 40년 5월 13일 을해.

38) 『광해군일기』26, 2년 3월 21일 정유.

장기간 생존하여 대립 갈등을 상당기간 이어갈 수 있으며, 또한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인 지위도 엇비슷하여 서로 경쟁 상대가 될 만한 인물로는 역시 남인의 류성룡, 북인의 정인홍이었다. 정인홍이 류성룡을 前漢의 공손홍에 비유하면서 배척하였다고 하였는데, 공손홍의 어떤 점을 특히 빗댄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공손홍의 행적을 더듬어 짐작할 때, 대개 논변은 뛰어난지만 굳세게 다투지 않는 면모라든지 동료들과 약속한 건의를 군주 앞에 가서는 차마 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미루어버린 사실 등을 지적하고 싶었던 듯하다.

기축옥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은 옥사 만연의 주된 책임자였던 서인에 대해 엄청난 분노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피화할 당시에 적극적으로 옹호해주지 않은 동인의 유력 인사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같은 동인이더라도 정여립과 소원하여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았던 이들이 있으며, 그들 중에는 관원으로서 부득이하게 옥사의 처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도 있었다. 사안이 다른 것도 아닌 역옥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서 구원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도 양해되지 않은 것은 화가 너무 참혹하고 억울함이 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심화된 갈등은 같은 붕당 안에서 함께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동인 내에 북인과 남인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붕당이 나누어진 데는 기축옥사가 가장 중요하고도 뚜렷한 변수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 점은 얼마 뒤 정철이 세자 책봉을 주청하였다가 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³⁹⁾ 기화로 하여 서인이 대거 공격을 받을 때 기축옥사와 관련

39) 『선조수정실록』25, 24년 2월 1일 무진. 이 때 이산해는 병을 청탁하고 나가지 않고, 정철과 류성룡 둘이서만 임금께 말하게 되었다. 정철이 먼저 건저할 것을 아뢰자, 임금은 깜짝 놀라면서 '지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경이 무슨 일을 하려는가?'

된 것이 탄핵의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 데서도 입증되는 것이다. 다만 이때 서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두고 북인의 강경책과 남인의 온건책 등 두 개의 주장으로 나뉘게 되었다.

선조 24년에 대간이 정철 등의 죄에 대해 논했는데, 이산해가 그 의논을 주장하였다. 옥당도 또한 장차 차자를 올리려고 부제학 김수가 사성 우성전의 집으로 가서 의논하니, 성전은 이렇게까지 파급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여 김수를 만류하며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대사간 홍여순이 성전을 탄핵하여 삭직하자 남북의 논의가 처음 갈라졌는데, 과격파를 북이라고 지목하고 온건파를 남이라고 지목하였다.⁴⁰⁾

위의 사료는 일시 집권한 동인이 기축옥사의 책임을 물어 정철을 위시한 서인의 처벌을 둘러싼 대응의 강온에 따라 남북의 분당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성전은 기축옥사의 만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서인에 대한 처벌 주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꺼려했었다. 이는 기축옥사 자체가 역모와 관련된 것이어서 위험 부담이 컸을 뿐 아니라 동인의 일부도 이 옥사의 처리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스스로의 눈을 찌르는 우를 범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우성전의 생각에 류성룡이 얼마만큼 함께 하였는지는 분명하게 알 도리는 없지만 유사한 생각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류성룡도 옥사의 위관을 일시 맡은 적이 있거나⁴¹⁾ 비록 위관은 아니었더라도 대신으로서 국정에 대한 영향

하고 사뭇 노여워하니, 정철은 허둥지둥 나와버렸고, 류성룡도 감히 더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물러나왔다(이건창, 『당의통략』, 27쪽).

40) 『연려실기술』18, 선조조 고사본말, 동서남북론의 분열(『국역 연려실기술』IV, 413쪽).

41) 이건창, 『당의통략』, 25쪽. “이때 철은 휴가를 청해서 조정을 떠나고 류성룡이 그에 대신해서 위관으로 있었는데, 마침 그 때 발이 여러 번 형벌을 당한 끝에 죽고 말았다. 성룡은 발과 함께 동인이지만 사이가 서로 좋지 못하고 또 임금의 명령이므로 감히 용서해주지 못하고 곤장을 때려 죽였다.”

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처지였기 때문이다.⁴²⁾ 우성전의 판단은 이러한 류성룡을 비롯한 남인의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의식하고 염려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생각한다.

V. 남북 대립의 고착과 류성룡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은 붕당간의 갈등을 상당 부분 수면 아래로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임진왜란 동안 남인의 거두 류성룡은 영의정으로 도체찰사를 겸하여 국정을 총괄하면서 전란 극복의 책임을 맡았다.⁴³⁾

그런 가운데 남인과 북인 간에 새로운 대립 요소가 첨가되었다. 류성룡과 이산해의 갈등이 그것이다. 임란 중인 선조 28년(1595) 선조와 일부 조신들이 파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귀양 가 있던⁴⁴⁾ 이산해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었다. 이산해는 곧 풀려나서 조정에 복귀하게 되었지만,⁴⁵⁾ 이 때 류성룡이 적극 저지하여 막으려 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⁴⁶⁾

이로 인해 이산해는 류성룡을 원망하는 마음이 골수에 사무쳤다고 한

42) 류성룡은 기축옥사가 일어난 직후인 선조 22년 12월 이조판서에 제배되었으며(『선조실록』23, 22년 12월 16일 기축), 이듬해인 선조 23년 5월에는 우의정에 임명되었다(『선조실록』24, 23년 5월 29일 기사).

43) 임진왜란기 류성룡의 구국활동은 최근 발간된 다음의 저서에 잘 집약되어 있다. 이성무 외 엮음,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44) 『선조실록』26, 25년 5월 17일 병자.

45) 『선조수정실록』29, 28년 1월 1일 갑술 ; 『선조실록』59, 28년 1월 11일 갑신.

46) 김시양, 『부계기문』(『국역 대동야승』17), 535-536쪽.

다. 이산해의 아들 이경전의 요직 임명 저지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남인인 鄭經世·韓浚謙·金弘美는 이경전의 이조 낭관 추천을 극력 막아서 저지시켰던 것이다.⁴⁷⁾ 이산해 측에서는 당연히 류성룡이 뒤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믿었다. 후일 이산해는 남이공으로 하여금 류성룡을 탄핵케 하였으며,⁴⁸⁾ 이경전도 아버지의 후광과 고모부인 김응남의 도움으로 남인을 맹렬하게 공격하게 되었다.⁴⁹⁾ 당시 류성룡의 세력으로는 이원익·이덕형·이수광·윤승훈·이광정·한준겸 등이 있었고, 이산해의 세력으로는 류영경·기자현·박승중·류몽인·박홍구·홍여순·임국로·이이첨 등이 있었다.⁵⁰⁾

이로써 류성룡과 이산해를 중심으로 하는 대립의 구도가 첨가된 것이다.⁵¹⁾ 후일 류성룡의 후손인 류주목은 그가 편찬한 『朝莖約全』에서 류성룡이 영남사람이어서 남인이라 하였고, 이산해가 洛北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북인이라고 하였다는 분당설을 싣고 있다.⁵²⁾ 우성전과 이발로 인해 남인과 북인이라는 당명이 생겨난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해주는 의미가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조기에 사망함으로써 대립의 중심에 계속 서기에는 현재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두 사람에게 그 대표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남에 기반을 둔 퇴계학통의 적전인 류성룡과 그에 버금가는 벼

47) 이조민, 『괘일록』(『괘림』, 탐구당, 1969), 32쪽 ; 김시양, 『하담파적록』(『국역 대동야승』17), 417쪽.

48) 『인조실록』9, 3년 5월 17일 갑자 ; 류주목, 『계당집속집』하(『계당전서』상, 아세아문화사, 1984), 『朝莖約全』, 572쪽.

49) 이조민, 『괘일록』, 32쪽.

50) 류주목, 위의 책, 『朝莖約全』, 572쪽.

51) 송근수, 『죽정록』(『당쟁사자료집』1, 오성사, 1981), 大小北之分黨.

52) 류주목, 위의 책, 『朝莖約全』, 572쪽.

슬이나 명망을 가진 이산해에게 새로운 남인과 북인의 상징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두 사람은 남인과 북인의 대표적 존재로 부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손색이 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미 분기한 남·북인 간의 대립을 고착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남인은 임진왜란이 거의 끝나갈 막바지 무렵부터 대대적인 북인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인의 영수인 영의정 류성룡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었다. 공격은 몇 차례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수위를 높여가는 양상을 띠었다. 가장 먼저 공격의 구실이 된 것은 류성룡의 변무사신의 회피 의혹이었다. 북인으로서 이것이 선조로부터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으로 예견하였던 것이고, 이를 통해 일단 조그만 상처라도 확실하게 낸 이후 2차 공격을 가하는 것이 제거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임란 중 조선에 파견된 贊畫主事 정응태는 경리 양호와 서로 갈등하면서 다투는 가운데 ‘조선이 명을 기망하고 왜를 불러들여 요동 옛 땅을 회복하려 하였다’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간 奏文을 명 황제에게 올린 바 있었다.⁵³⁾ 이에 대응하여 조선으로서는 명 조정에 급히 사신을 파견하여 사실이 아님을 변무할 필요가 있었다. 이때 영의정이었던 류성룡이 사행을 자청하지 않은 것을 회피한 것으로 몰아붙여 죄목으로 삼은 것이다. 선조도 영의정이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⁵⁴⁾ 죄목으로 삼기에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적절한 것이었다. 이이첨을 위시하

53) 『선조실록』104, 31년 9월 21일 계묘.

54) 『선조수정실록』32, 31년 9월 1일 계미. “이때에 丁應泰의 參本에 대해 辨誣하는 일로 사신을 보내 陳奏하기로 의논하는데, 상은 영의정 류성룡에게 뜻을 두었으나 류성룡이 가려 하지 않아 윤두수·이항복·이호민 등을 注擬하였다. 상이 노하여 ‘右相이 마땅히 가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에 우상 이덕형은 집반사로 提督의 군중에 있어서 마침내 류성룡을 擬差하였다. 류성룡이 그래도 바야흐로 物議가 있다 하여 가려 하지 않으니, 群議가 류성룡이 이미 상의 뜻을 알고도 가기를 자청하지 않고 또 의차한 후에도 規避하는 뜻을 둔다 하여 비난하는 자가 많았다.”

여 사헌부와 사간원에 소속된 복인으로부터 수십 차례 걸쳐 집요한 탄핵을 받았다.⁵⁵⁾ 결국 선조 31년 류성룡은 영의정에서 체직되었다.⁵⁶⁾

이렇게 류성룡의 날개가 일단 꺾이자 곧 바로 삭탈관작을 주장하는 2차 공격이 가해졌다. 류성룡에게 가해진 탄핵의 사유는 남북분당을 일으키고 봉당을 扶植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이었다.⁵⁷⁾ 정승이 되어 권력을 가진 것을 기화로 위세를 조성하여 동인을 다시 나누어 남북의 봉당을 만들게 하였으며,⁵⁸⁾ 자신들에게 붙는 자를 남인이라고 하고, 뜻을 달리하는 자를 북인이라고 하여 당쟁의 실마리를 크게 열게 하였다는 것이었다.⁵⁹⁾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해쳐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을 속여도 세상이 깨닫지 못할 정도로 간사한 자질과 간교한 지혜를 지닌 인물”이라는 식의 문구를 동원하기도 하였다.⁶⁰⁾

이어 정인홍의 지시를 받은 정언 문흥도에 의해 ‘主和誤國’의 죄목이 덧씌워졌다.⁶¹⁾ 임란 중에 일본과의 화의를 주창하여 나라를 그르쳤다는 주장이었다.⁶²⁾ 당시 명군의 힘을 빌어 겨우 왜군을 막고 있던 조선의 처지에서는 일본과의 화의를 주도할 권한이나 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당시의 실정이었다. 이를 감안할 때 ‘주화오국’이란 말 자체가 별로

55) 『선조실록』104, 31년 9월 24일 병오.

56) 『선조실록』105, 31년 10월 9일 신유.

57) 『선조수정실록』32, 31년 11월 1일 임오.

58) 『선조실록』114, 32년 6월 9일 병술.

59) 『선조실록』108, 32년 1월 18일 기해.

60) 『선조실록』106, 31년 11월 16일 정유.

61) 『선조실록』106, 31년 11월 13일 갑오, 16일 정유 ; 이진창, 『당의통략』 선조조. 한편 동문인 조목이 류성룡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를 ‘주화오국’으로 지목하면서 엄하게 힐난한 사실도 있다(『선조실록』181, 37년 11월 12일 무자).

62) 류성룡을 강화론자로 규정하는 논의의 무리함에 대한 검토는 다음의 논고에 자세하다.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류성룡의 외교활동」,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현실성과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선조도 “일을 논하는 것이 실정에 지나치면 그들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관자 역시 수긍하지 않는 법이다.”라고 표현하면서 탄핵 논리의 무리함을 지적한 바 있고, 중국 조정에서 이미 화의를 허락한 상황이었음을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그 당시에는 누구인들 그러하지 않았던가.”라고 하면서 류성룡을 억울함을 옹호한 바 있다.⁶³⁾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류성룡을 지켜본 선조의 표현이 이러한 감안을 할 때 ‘주화오국’의 낙인은 무리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류성룡은 파직을 거쳐 끝내 관작을 삭탈당하기에 이르렀다.⁶⁴⁾ 이 일련의 논의는 대개 이경전·남이공의 무리가 몰래 주장하고 문홍도와 이이첨이 창도한 것이었다.⁶⁵⁾ 그들 뒤에 이산해와 정인홍이 있었음은 물론이었다.

이러한 조처의 무리함을 아는 선조는 얼마 뒤 직첩을 돌려주는 조처를 취하였다. 이에 양사 등에서 반년 이상 수십 차례 걸쳐 명을 거두라는 주장을 펴서 다시 직첩을 삭탈 당하였다.⁶⁶⁾ 그러니 얼마나 집요하게 그를 꺾어버리려 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⁶⁷⁾ 이것이 임진왜란 극복을 위해 온갖 난국을 헤치면서 국정을 수행한 최고 집권자에게 돌아온 결과였다.

류성룡의 관작 삭탈은 남인정권의 퇴조로 이어졌다. 류성룡의 ‘爪牙·鷹犬’으로 간주된 정경세·김수·허성·최관·김순명·조정립·이호민·

63) 『선조실록』115, 32년 7월 4일 신해.

64) 『선조실록』106, 31년 11월 19일 경자.

65) 『선조수정실록』32, 31년 11월 1일 임오, 사신평.

66) 『선조실록』116, 32년 8월 9일 을유.

67) 수년이 흐른 선조 36년에 가서야 비로소 직첩을 돌려받고 풍원부원군에 봉해졌다(『선조실록』167, 36년 10월 7일 기축).

윤국형 등도 일거에 조정에서 몰려났다.⁶⁸⁾ 그리고 남인 우성전에 대한 폄훼도 남인의 명분을 꺾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성전은 경기도에서 의병을 일으켜 활약하면서 여러 공을 세운 바 있었으며, 결국 과로로 병을 얻어 난 중에 사망하였다. 그러나 정인홍의 복인에 의해 ‘평양 전투 때에 관망하면서 머물러 있었다’는 무고를 받아 관직이 삭탈되었다.⁶⁹⁾ 우성전을 과로사한 의병장으로 그냥 두기가 복인의 입장에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한다.

이로써 남인정권은 퇴조하고 복인정권이 창출되었다. 이렇게 한 차례씩 진퇴를 주고받으면서 남인과 복인의 대립적 상황은 완전히 고착되었다. 남인은 주로 퇴계학파를 중심으로 비교적 단순한 구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자체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복인은 동인에서 퇴계학파를 제외한 나머지 복잡다기한 구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제나 자체 분당으로 치달을 소지를 강하게 안고 있었다. 실제 복인은 대북과 소북으로 다시 분당하였다.

선조 31년 낙향한 류성룡은 10여 년 간 안동에 칩거하면서 저술과 후진 양성에 전념하다가 선조 40년 6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소식을 접한 도성의 백성 천여 명이 류성룡의 옛 집터에 모여 弔哭을 하면서 추모하였다고 한다.⁷⁰⁾ 이미 장시간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의 상에 이

68) 『선조수정실록』32, 31년 11월 1일 임오.

69) 『연려실기술』18, 선조조의 명신, 우성전(『국역 연려실기술』IV, 598쪽).

70) 『선조실록』211, 40년 5월 13일 을해. 사신은 이 현상에 대해 “성안 백성들이 곡한 일은 오직 이이와 유몽학이 죽었을 때에만 있었는데, 이이의 상은 서울에서 있었고, 유몽학은 장령으로 있었을 때 市坊의 積弊를 개혁하기를 아뢰어 백성들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사람이 조정에서 발자취가 끊어졌고 喪이 천리 밖에 있었는데도 온 성안 사람들이 빈 집에서 회곡하였으니, 어찌 시사가 날로 잘못되어가고 민생이 날로 피폐해지는데도 이어 首相이 된 자들이 모두 전 사람만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追感하기에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정도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은 유래를 찾기 힘든 일대 사건이었다. 이는 어느 누구의 어떤 평보다도 류성룡의 뛰어난 도량과 치적을 웅변해준다.

이원익은 조정에서 물러나기를 각오하고 선조에게 다음과 같은 진언을 드린 바 있다.

천하 국가의 일은 단지 公·私 두 글자로 구별됩니다. 순수하게 공도를 쓰면 태평한 세상이 되고, 공과 사가 뒤섞이면 나라는 유지되더라도 말세가 되고, 순전히 私情을 쓰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남인이 국사를 담당하였을 때는 私가 실로 많았으나 公道 10에 3·4는 있었는데, 북인이 일어난 후에는 公道가 전멸하고 사정이 크게 행해졌습니다.⁷¹⁾

물론 같은 남인의 평가여서 그대로 취하여 믿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같은 시기 정승을 지낸 사람의 안목을 무시할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류성룡의 상에 조문하는 백성들의 모습과 함께 음미해볼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VI. 맺음말

남북분당의 과정을 남북 갈등, 갈등 심화로 인한 분당, 대립의 고착이라는 세 단계를 설정하여 각 단계별로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검토를 통해 남북분당 과정을 재구성하면서 종합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특히 단계별

특기하였다.

71) 『선조수정실록』33, 32년 11월 1일 병오.

과정에서 나타난 류성룡의 역할에 주목하여 이를 통해 그의 영향과 위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먼저 동인 내부의 남북 갈등이 있었던 시기는 선조 13년으로부터 선조 22년 기축옥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이 시기 갈등에는 여러 사람이 상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우성전과 이발, 우성전과 정인홍, 이경중과 정여립, 이경중과 정인홍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이 그러한 예였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분당으로까지 치달을 정도로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선조 22년의 기축옥사는 동인을 남북으로 분당시키는 지경으로까지 치달게 하였다. 정여립의 모역사건을 계기로 만연된 옥사는 동인과 서인뿐 아니라 선조까지 깊숙이 개입하면서 후일 북인으로 분류되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처형되는 참혹한 화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화를 주로 입은 측의 인사들이 옥사를 만연한 상대당인 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적극적으로 구원하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던 같은 동인의 일부에 대해서도 점차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류성룡과 정인홍, 류성룡과 이산해, 정경세와 이경전 간의 갈등으로 심화되면서 동인이 결국 남인과 북인으로 분당되었다. 얼마 뒤 서인에 대한 처벌의 강도를 두고 북인의 강경론과 남인의 온건론이 부딪치게 되었는데, 결국 이 문제도 기축옥사와 연관된 것이었다.

임진왜란기에는 거의 전 기간을 류성룡이 영의정으로서 도체찰사를 겸하면서 국난극복에 총력을 기울인 때였다. 극복을 눈앞에 둔 시점인 선조 31년 류성룡이 북인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대립 양상은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그는 북인으로부터 변무 사행을 자청하지 않은 점을 집요하게 공격받아 체직되었고, 이어 남북분당의 책임, 주화론 주창 등의 죄목이 더하여져 관작이 삭탈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조정에서 포진하였던

남인 인사들도 함께 몰려났음은 물론이었으며, 임란 중 의병 활동을 하다가 과로사한 우성전도 관작이 삭탈되었다. 드디어 남인이 몰려나고 북인 정권이 들어선 것이다. 남인과 북인이 한차례씩 진퇴하면서 남인과 북인의 분당은 완전히 굳어지게 되었다.

위와 같은 남북분당의 과정을 거치면서 류성룡은 처음에는 동인의 중심인물 나중에는 남인의 영수로서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중심적 위치에 서기에 여러 가지 좋은 조건과 자질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다. 퇴계 이황의 적전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배와 동문, 그리고 제자 등 폭넓은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문과를 거쳐 관직에 나아가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최고 관직인 영의정에까지 이른 점도 대표성을 확보하기에 좋은 조건이었다. 임진왜란기에 영의정을 맡아 위기의 국면을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왜란을 극복한 점도 상징성을 부여받기에 충분한 요소였다. 아울러 66세까지 생존하여 비교적 천수를 누린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더구나 임란 말기 북인의 집요한 공격으로 삭탈관작에 처해져서 낙향하는 극적인 모습도 남인의 대표자로서의 모습을 강한 이미지로 각인시키기에 충분하였다. 류성룡의 거물로서의 품모는 억울한 삭탈관작이라는 아쉬움으로 인해 더 강한 인상을 당대인의 기억 속에 남기게 되었다. 여기에 류성룡이 가지는 역사적 위상과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광해군일기』 『인조실록』 『대동야승』 『패림』 『연려실기술』 『죽징록』 『당의통략』 『서애집』 『추연선생일기』 『수암집』 『계당전서』 『내암집』

- 우인수, 『조선후기 산림세력연구』, 일조각, 1999.
- 이성무 외 엮음,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 이성무 외 엮음,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 정호훈, 『조선후기 정치사상연구』, 혜안, 2004.
-
- 구덕희, 「선조대 후반의 정치체제 재편과 정국의 동향」, 『한국사론』20, 1988, 201-268쪽.
- 김강식, 「선조 연간의 최영경옥사와 정치사적 의미」, 『역사와 경계』46, 2003, 1-29쪽.
- 김용덕, 「정여립 연구」, 『한국학보』4, 1976, 40-83쪽.
- 우인수, 「정여립 모역사건의 진상과 기축옥의 성격」, 『역사교육논집』12, 1988, 69-99쪽.
- 우인수, 「인조반정 전후의 산림과 산림정치」, 『남명학』16, 2011, 35-61쪽.
- 우인수, 「조선 선조대 남북 분당과 내암 정인홍」, 『역사와 경계』81, 2011, 197-222쪽.
- 이상혁, 「조선조 기축옥사와 선조의 대응」, 『역사교육논집』43, 2009, 513-587쪽.
- 이희권, 「정여립의 학문과 사상」, 『전북사학』21·22, 1999, 625-632쪽.
- 이희환, 「정여립옥사의 실상과 그 영향」, 『전주학연구』3, 2009, 65-85쪽.

Abstract

Ryu Seong-Ryong's Role in the Split into Namin and Bukin Party

Woo, In-Soo

This study divided the process of the split into Namin and Bukin Party from the Dongin Party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in Joseon into three stages: conflicts within the Dongin Party, the split due to the deteriorating conflicts, fixation of confrontations. Focusing in particular on the roles of Ryu Seong-ryong in each stage, the study set out to demonstrate his influences and status.

The period of Namin-Bukin conflicts within the Dongin Party lasted from the 13th year of King Seonjo's reign to the 22nd year of his reign before the outbreak of Gichukoksa, which seemed to have caused Dongin to split between Namin and Bukin. Confrontations between Namin and Bukin became fixed as Ryu lost his position after the extensive attacks of Bukin in the 31st year of King Seonjo's reign and the Bukin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the split between Namin and Bukin Parties, Ryu was initially a central figure of Dongin and later held the status of leader of Namin. Various kinds of good conditions and qualifications aided him in taking a central position. He had such outstanding talents that he established himself as the best pupil of Lee Hwang. Based on the conditions, he secured a broad network of supports including his predecessors, alumni, and pupils. He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started a career in public offices, and finally was appointed to Yeonguijeong, the highest position in public offices, which was a good condition for him to secure representativeness.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he successfully straightened out the national crisis and overcame the war as Yeonguijeong, an element good enough to grant him symbolism.

At the end of the war, he was forced to leave his position and rank due

to the persistent attacks of Bukin and retired to the country, dramatic aspects of his that worked to imprint his strong image as the leader of Namin. His presence as an important figure combined with his pitiful and unfair situation of being forced to leave his position and rank helped him leave even stronger impressions in the memory of his contemporary people.

Key Word

Ryu Seong-ryong, Dongin Party, Namin Party, Split into Namin and Bukin Party, Gichukoksa(己丑獄事)

- 논문투고일 : 2014.6.30. 심사완료일 : 2014.8.12. 게재결정일 : 2014.8.12.